

현대전화 소지맨 그해 수능만 무효 비만 심하면 癌사망 위험 크다

■ 교육부 '부정행위 처리규정' 마련 경미한 부정 이해해 응시할 수 있어 대리시험 등은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 금지물품을 소지하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지만 이해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적발된 단순 부정행위자 38명에게 소급적용돼 이들은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수능시험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금지물품의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 부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은 부정행위의 경중을 가려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 무효와 이해해 응시자격 정지 제재를 가하는 반면 휴대전화·MP3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

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다.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경우, 대리시험, 신호를 주고 받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경미한 부정행위에는 휴대전화 등 휴대금지물품 소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규정 위반, 종료령 이후 답안지 작성행위 등이 들어간다.

수험생들은 8월29일부터 9월13일까지 전국 고교, 시험지구 교육청에 2007학년도 수능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최근 6개월 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가로 3.5cm 세로 4.5cm,얼굴길이 2.5~3.5cm)'을 부착해야 한다. 모자를 벗고 배경없이 촬영한 동일 일관 천연색 사진이어야 하고 짙은 색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은 뒤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 등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육부 황인철 대학지원국장은 "원서를 일괄 접수하는 재학생과 달리 개별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등을 참고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대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심·뇌혈관질환 발병 가능성도 높아져

연세대연구팀 120만명 추적조사

비만이 있을 경우 암과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이하 심·뇌혈관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비만중세가 심화될수록 심·뇌혈관질환 사망 위험도 더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미국 존스홉킨스대 보건대학원 연구팀과 함께 체중과 사망위험의 상관관계 연구를 위해 30~95세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진자 120여만 명을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비만 척도)가 높을수록 암 발병률은 평균 1.5배,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은 2.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암 사망률은 BMI 26.0 부근(26.0~28.0)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 남녀별 비만도에 따른 암 사망 위험도

구분	비만도(BMI, kg/m ²)	비율
	23.0	30.00%
■ 남자		
전체암	1.0	1.64
대장암	1.0	1.50
간암	1.0	1.86
신장암	1.0	4.35
위암	1.0	1.77
■ 여자		
전체암	1.0	1.31
대장암	1.0	1.96
간암	1.0	1.61
신장암	1.0	2.60
유방암	1.0	2.51

률은 BMI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비흡연자이면서 BMI가 23.0 이상 25.0 미만인 집단이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저체중이 호흡기 질환 발병 위험을 높여 비만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협한다는 기존의 학설을 정면으로 반박, 국내외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필뉴스

여전히 덥네 8월 24일 (음 7월 1일) ◇전국날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 한 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구분	구름량	기온
광주	구름많고 소나기	24~32℃
대전	구름많고 소나기	24~32℃
대구	구름많고 소나기	24~32℃
부산	구름많고 소나기	24~32℃
서울	구름많고 소나기	24~29℃
인천	구름많고 소나기	24~32℃
대전	구름많고 소나기	24~32℃
대구	구름많고 소나기	24~32℃
부산	구름많고 소나기	24~32℃
제주	구름많고 소나기	24~32℃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2:47 썰물 < 08:00
여수 밀물 < 09:23 썰물 < 15:23

▲해돋이 05:58 ▲해질 19:11 ▲달돋이 06:05 ▲달질 19:32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날씨						
최저/최고	24/31	23/31	23/31	22/30	22/29	22/29

수능 부정행위 유형

- ◇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위원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위원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광주 북구 국민체육센터 개관

23일 문을 연 광주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 전남대 캠퍼스에 건립된 이 국민체육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680여 평 규모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기

금 30억원이 투입됐다. 지상 1층에는 요가실·사위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헬스장·체력측정실, 3층에는 배드민턴·탁구·배구·농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강당과 휴게실 등이 설치돼 있다. 체육센터 운영은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가 맡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

신안 정전피해 지급가능 배상금 7억원 불과 양식어가 민사소송 잇따를 듯

피해액 89억 잠정 집계

신안 정전 대란으로 인한 양식장의 피해가 89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부터 24시간 가량 자연면과 안좌면, 팔금면 등 9개 면에서 빛어진 정전사고로 이 지역 양식장 47개소에서 88억8천845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양식장별 피해 내역은 ▲전어 2개소 295만 마리 ▲새우 40개소 4천44만 마리 ▲꽃게 등 5개소 139만5천 마리 등 6개 양식어종 총 4천47만8천 마리다. 이번 정전사고는 지난 20일 현대해운 소속 선박인양 크레인 선 '현대 9001호'(1천827t)가 운항 도중 해상

에 설치된 신안송전선로를 절단하는 바람에 일어났으며, 이튿날인 21일 오후 8시에 전기공급이 재개됐다.

이번 피해와 관련 현대해운 측은 한국해양조합에 선주배상책임공제가 가입돼 있는 만큼 조합 측에 배상을 의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번 사고에 지급할 수 있는 배상금은 7억원에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한국전력 측은 규정이 없어 배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신안군 관계자는 "양식어가의 피해보상 문제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결말이 날 것 같다"며 "어민들이 보상을 받기까지는 상당기간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철거 예정 광주지방노동청 호남동에 임시청사 마련

광주지방노동청은 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로 현 청사가 철거 예정이어서 광주시 동구 호남동 23-2번지 옛 태평극장 건너편 대원빌딩에 임시청사를 마련했다"고 밝혔

다. 노동청은 28일부터 2년 동안 대원빌딩 1~5층 임시청사를 사용하며, 신청사가 건립된 이후 다시 이전할 계획이다.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는 현 위치(광주 동구 금남로 5가 42번지 대신증권빌딩 3-6층)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9월초까지 더위...태풍 8~10개 발생

기상청 가을철 날씨 예보

기상청은 23일 가을철(9~11월)에 보아서 올 가을 기온은 평년(8~19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187~436mm)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가을철 중·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약한 고(高) 수온 상태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력한 '엘리뇨'로 발달하기는 어렵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9월 전반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유지되면서 여름철 기압계 형태를 보여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인 고온현상이 예상된다. 10월에는 중국 내륙에서 발달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많고 다소 건조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11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을 것

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은 앞으로 평년(11.5개)보다 적은 8~10개 정도 발생하며, 우리나라에는 평년(0.9개)과 비슷한 1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엘리뇨(El Nino)=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라는 뜻. 남아메리카 서해안을 따라 흐르는 차가운 페루 해류 속에 갑자기 이상난수(異常暖水)가 침입하는 해류의 이변현상. 불규칙적으로 2~7년의 주기를 가진다. 적도 쪽으로부터 북풍과 함께 이상난수가 흘러와 오징어는 폐족을 하고, 정어리는 어더튼가 사라져 버린다. 또 해조(海藻)들도 굵어 죽고, 육상에서는 홍수가 일어나 큰 피해를 입는다.

생활안내

교통안내	기정법률상담소	학교폭력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보안복지협회 상쾌연선상담소 671-4050	국번없이 112
광도안내 1544-7788	광주 YWCA 527-0011	전남경찰청 226-0112
대한항공 222-2000	24시간 청소년상담 광주지점	233-2828
아시아나항공 221-6300	국번없이 1388	사이버센터 02118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국세종합상담센터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국세청 1588-0060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병무민원상담 광주연남방무청 1588-9090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소비자 상담 광주 YWCA 232-6133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YWCA 524-5400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당직변호사(24시간) 최정원 225-0550	주무고실 232-0643~4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
법무사회 법률상담(24시간) 김재길 239-1809	북쪽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일본규슈 골프투어 모집

최저비용으로 최고의 골프투어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

10월 10일(토) 1박 2일 / 10월 17일(토) 1박 2일 / 10월 24일(토) 1박 2일

구분	비행기	숙박	식사	골프	기타	총액
1인	1,2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200,000
2인	1,0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200,000
3인	8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200,000
4인	6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200,000
5인	4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200,000

문의처: (주)일본투어 (02)312-0541, 222-8111